

# 결손의 아픔 함께 나누는 터전

성남훈 《소록도》



· 앞 못보는 남편의 눈이 된 아내(왼쪽).  
· 결핍된 이의 손과 발이 된 간호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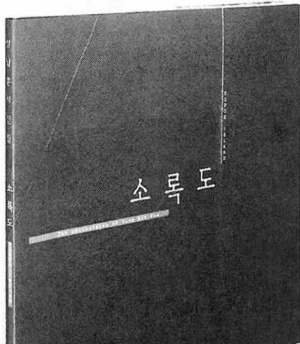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리얼리티의 근거를 잃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사진에서조차 현실이나 진실에 대한 설득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사진작가가 직시해야 할 현실의 문제는 아직도 많다. 더욱 중심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에 카메라를 들이댄 것, 지금껏 많은 사진작가가 사명처럼 여겼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잊혀진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초점을 맞춘 신세대 사진작가 성남훈(36)의 사진집 《소록도》(타임스페이스)는 작가정신의 마지막 끈을 놓지 않

있던 작품집으로 평가된다.

소록도는 고흥반도 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그곳에는 일제하에서 강제노동으로 육신이 문드러진 사람들, 천형으로 불리는 한센병(나병)으로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천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외로움과 고통의 투병생활을 잇기 위해



하모니카를 부르는 검은 안경의 아저씨,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기막힌 바느질 솜씨를 보여 주는 할머니, 신혼초 아내의 병을 알고 섬으로 들어와 혹독한 시련을 함께 나누 노부부의 모습은 보는 이를 숙연케 만든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나머지 성한 육신을 나누는 사람들, 다리가

없음에도 그림같이 밭을 일구고 손이 없음에도 노란 유채꽃 밭을 가꾸는 사람들, 중환자실에서 천사의 영혼을 들려주는 간호사들에게서 삶의 또다른 감동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승의 고통을 짊어지고 떠나는 동료들 꽃가마에 태워 장지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성모님을 만난 것을 그저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과욕을 일삼는 세상 모든 이를 소리없이 꾸짖고 있다.

인간은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육신이 성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갈 때 평안은 찾아온다. 결손에서 빚어진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들을 탐방하며 작가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동질적 회복의 열린 창으로 다가오도록 유혹한다. 그것이 성남훈 사진이 가진 매력이다. 그는 현재 경민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며, 프리랜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 오완진 기자

## 출판저널

통권 제244호 / 1998년 10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공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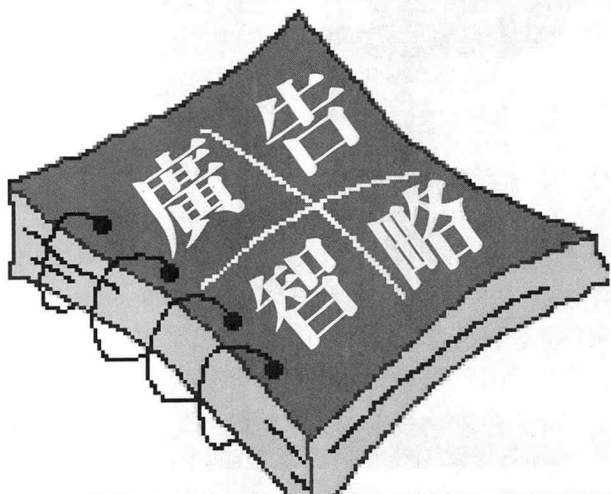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보다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은  
어려운 출판계의 현실을 《출판저널》 광고지략으로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